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강사 인식에 관한 연구

탁 지 현\*

## 목 차

Abstract	2. 연구 도구
I. 서론	3. 자료 수집 및 분석
II. 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무용교육	IV. 결과 및 논의
1.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및 가치	1. 운영시스템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요	2.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3.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3. 교육환경
III. 연구방법	V. 결론
1. 연구 참여자	참고문헌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teaching artist on arts & cultural education support project

Tark, Jee-hyun · Ewha Womans University

Now days, the opportunity of art & cultural education is quantitatively expanding and the teaching artist support project is in progress actively. But there is a need to analysis the quality of the project, so this study has begun.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eaching artist on art & cultural education support project, I had an interview with 10 dance teaching artists who's working in Seoul & Gyeonggi area based on questions about operating system, training program, educational contents and environment and reached conclusions.

\*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논문투고일: 2014. 7. 20. 심사일: 2014. 8. 20. 게재확정일: 2014. 9. 5.

First, application & selection system need to present a definite, reasonable standard and the process have to be clear. On the matching system of teaching artist and school, the limit of maximum lesson has to be standardized and the policy need improvement to help the connection of teaching hours. The purpose of evaluation must be reflecting and developing teaching artist themselves. An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term of a contract, raise the pay and expand the admit rate of teaching career.

Second, the basic training composed of educational theory/method, practical training and networking is very essential, and the additional training program work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is needed. Teaching material must be made up for the creative contents and methods tied with new textbook.

Third, the school have to set aside the space for the dance class before applying the support project and the center have to devise the way to provide the substantially required equipment for the dance class. Also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collaboration of school teacher and teaching artist is needed.

**key words:** arts & cultural education, dance education, teaching artist

**주요어:** 문화예술교육, 학교무용교육, 예술강사

## I . 서론

20세기를 지나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로 변모된 21세기에는 무한 경쟁이라는 키워드에서 일보하여 자신의 삶을 구성, 치유,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역사, 정치, 경제는 물론 이데올로기, 철학의 생성을 위한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오늘날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적극적으로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홍세라, 2011:127).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예술은 형식의 학문에서 심성의 학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무용은 현대 예술교육의 장에서 학문을 가로지르고 삶과 실천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사유체계로 자리하게 되었다(한혜리, 2014:45). 다양한 예술장르별 언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경험을 재현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예술이며,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활동으로서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국민의 창의성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여 현재 총 8개의 분야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초를 기준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7,809개 학교에서 4,735명의 예술강사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2,152개 시설에서 1,686여명의 예술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http://intro.arte.or.kr/business/>).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지 10여년,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는 양적으로 팽창되는 반면 그 내면의 질적인 수준은 어떠한지 반성적 시각의 필요성을 갖는다.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현황 분석(최윤진, 2007; 박은희, 2008; 강지은, 2009; 이선지, 2010), 인식 및 만족도 조사(황혜원, 2008; 박주화, 2011; 이경희,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양적연구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질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학교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관한 예술강사의 인식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무용분야 예술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첫째, 운영시스템 중 강사 접수 및 선발, 강사-학교배치 및 시수배정, 강사 평가,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예술강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중 기본연수 및 추가연수, 교재에 대한 예술강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교육환경 중 교실 및 기자재, 학교 교사의 인식 및 협업에 대한 예술강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에 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귀납적 내용분석으로 질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 II . 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무용교육

### 1.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및 가치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화두는 ‘예술교육’이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1세기는 예술이 중심이고, 예술이 테크놀로지와 함께 세계를 발전시키는 창조력의 원천이며, 인류사회의 통합과 치유를 위한 힘”이라는 주제를 강조했다. 이처럼 21세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술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로서 예술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김재은(2014:12-15)은 예술의 필요성을 1)인간생활에 필요한 교양 2)감성적 통찰력과

심미적 감응능력 육성 3)환경파괴에 대한 예방적, 치유적 역할 4)인격의 핵인 자아를 되찾게 만드는 표현적 기능 5)창조성과 상상력의 원천 6)삶의 활력소와 정신의 비타민 역할 7)교육적으로 필요한 감성교육의 7가지로 요약하였다. 이와 같은 가치를 내포한 예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세계화 속에서의 정체성 확립,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창의성 계발, 국가 경쟁력 향상의 네 가지로 언급된다(홍세라, 2011:130).

이러한 중요성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들을 밝혀낸 연구 결과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 최근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에서는 예술교육과 학습능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IQ, 공간인지력, 관찰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전반적인 학습능력에서 예술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용은 공간지각력과 판단력, 분석력 향상에 높은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www.oecd.org/edu/ceri/arts.htm](http://www.oecd.org/edu/ceri/arts.htm)). 유럽 문화전문가 네트워크는 ‘학교에 관심을 갖게 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The role of arts education in enhancing school attractiveness)’에 대해 연구한 결과 예술은 학교 내 사회성을 강화시키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애교심을 고취시키며, 다른 과목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의사소통 및 감성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http://www.arte365.kr/?p=1339>). 또한 김봉년은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인지기능, 주의력 향상, 우울증 감소 등의 효과를 얻으며, 특히 생물학적으로 뇌 발달 및 정서조절 능력 개발 진행되는 ‘예민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더욱 유의미함을 강조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중에서 학교무용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사회성(김연정, 2011) 및 학교생활 만족도(김현주, 2014), 정서지능(김현진, 2013),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김자영, 2010), 감성지능(반민주, 2010), 스트레스 감소(최하영, 이강순, 2012), 교우관계(김자영, 2011)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전술한 바와 같은 과학적 효과들로 입증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예술의 강점은 측정 가능한 것 이상에 있기에 과학적 방식으로 예술교육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학교 내 예술은 필수적이다. 예술은 과학이 제공하는 기반들에 빛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세우고 상상하는 것, 그것은 과학이다. 그 주어진 것을 넘어서 상상하는 것, 세우는 것, 보는 것, 그것은 예술이다...예술은 인류가 추구하는 정말 중요한 대부분의 가치들처럼 측정이 불

가능하다. 우리는 성격, 열정, 공감, 비전, 상상력, 자부심, 인간성 등을 채점할 수 있는가?(Davis, J. H., 백경미 역, 2013: 29, 138)

인간발달 심리학자이자 교육가, 예술가인 Jessica Hoffman Davis는 그의 저서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Why our school need the arts)」(2012)에서 예술교육의 차별적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 체계를 갖고, 예술과목이 보조적인 과목이 아니라 교육의 전면과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학생들이 교육 내 예술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상상력, 작용주체, 표현, 공감, 해석, 존중, 탐구, 반성, 참여, 책임’의 10가지로 제시한다.

데이비스가 제시한 10가지 효과는 예술교육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경험하게 되며, 아이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 배우게 하고 다른 과목이 줄 수 없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던 ‘놀이’가 고상함을 대표하는 예술과 함께 논의 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큰 변화이다(진중권, 2005: 앞면 표지). 예술은 더 이상 어렵고 전문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재미’와 ‘놀이’라는 문화적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학교 무용교육 중 특히 초등학교 무용교육은 ‘무용과 놀기’를 대전제로 하는 통합교육으로써 전문적, 기능적인 실기를 익히기 보다는 놀이와 예술, 사고와 행위, 의식과 경험의 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화숙은 “춤은 체육과 달리 몸 뿐 아니라 감정표현을 통한 정서교육을 통합적으로 가능케 한다.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 교육이 가능한 것이 바로 무용인 것이다. 내적 표출이라는 감성교육을 통해 오늘날 학생들의 정서를 어루만질 수 있는 교육이 무용이다(이정민, 2014:19)”라고 언급하며 무용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자부했다. 이처럼 무용교육은 학생 스스로 만들고(창작), 발표하고(공연), 보고 느끼는(감상) 과정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일깨워주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나아가 오늘날 결핍되기 쉬운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유의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역사는 1885년 미국교회 선교부에서 설립한 배재학당에서 시작된 이래, 1906년 통감부 설치 후 교육방침을 보통교육으로 확장하였고,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초·중·고등·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으로부터 교육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었다(김미경, 2010:21). 7차례의 개정 중 1973년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예술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1997년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과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목표로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 예술가와 예술교육자들로부터 제기된 음악·미술 외의 표현적 문화예술교육과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홍세라, 2011:131).

1998년 7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 학교 전통문화 소외현상이 제기되면서 학교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문국악인이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도하는 국악 강사포제가 시작되었고(‘00~), 이후 연극(‘02~), 영화(‘04~), 무용/만화·애니메이션(‘05~), 디자인, 사진, 공예(‘10~) 분야까지 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 2014년 현재 8개 분야 예술강사 4,735명이 전국 7,809개 초·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문화 창조자로 성장시키고, 문화적 소양인·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차별 사업규모<sup>1)</sup>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강사수(명)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164	4,263	4,485	4,735
학교수(개교)	3,214	2,445	3,157	3,689	4,799	5,436	5,772	6,531	7,254	7,809

2003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위한 문체부·교육부 공동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2004년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 양적 확대를 위해 유·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07~‘11)’ 등을 내세우며 유/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 예술강사 파견 지원 확대 등이 실현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 확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추진 구조, 일상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사업안내 참고

### 3.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무용분야는 2005년 첫째 무용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110명의 강사를 100개의 학교에 파견하였으며, 2006년부터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3년에는 851명의 예술강사가 1,678개의 학교현장에서 활동하였다.

표 2.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강사수와 학교수<sup>2)</sup>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강사수(명)	110	154	248	299	595	947	763	807	851
학교수(개교)	100	150	327	392	1,146	1,439	1,557	1,636	1,678

#### 1) 강사 접수 및 선발

해당 년도 사업에 참여할 강사들의 신청접수는 전년도 10월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 3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예술강사는 일정 연수과정 후 학교현장에 배치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토요동아리의 3개 영역과 2014년 추가된 초등학교 돌봄동아리의 교육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토요 동아리와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강사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2014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가 기본 자격사항으로 추가되었다.

표 3. 연도별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

년도	지원자격		선발절차	시험내용
2005	교과/재량활동	특별활동/특기적성	서류전형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과 이에 대한 심사자 소견
	무용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직이수자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2006	교과/선택/재량활동	특별활동	1차: 서류전형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업이상 교직이수자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2013 연차보고서 참고

년도	지원자격		선발절차	시험내용
	강사풀제 활동 경력자·교직이수자 우선선발		2차: 면접	교육전문성 등 구술면접
2007	교과/재량활동	특별활동	전년도와 동일	
	무용학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중등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	무용학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교직이수자와 활동경력자 우선선발 및 파견			
2008	교과/재량활동	특별활동/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무용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초·중등 교직과정 이수자 우대			
2009	관련교과/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무용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관련교과 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2010	관련교과/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동아리	1차: 서류심사	학력, 교육활동 경력, 현장 경력 등
	◦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 무용학과 대학원 졸업자	무용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경력자	2차: 실기심사	◦ 초등: 외국 민속무용, 한국무용, 즉흥무용 ◦ 중등: 외국 민속무용, 한국무용, 즉흥무용, 발레
	*우대자격 전년도와 동일		3차: 면접심사	교육전문성 등 구술면접
2011	관련교과/창의적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	계발활동/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무용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경력자		
	*우대자격 전년도와 동일 *무용 관련 학과: 무용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체육학과 제외)			
2012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2013	관련교과/창의적체험활동/토요동아리	토요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우대자격 전년도와 동일			



년도	지원자격		선발절차	시험내용
2014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초등학교 돌봄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li> <li>◦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무용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경력자</li> </ul>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 강사 연수

강사 선발 후 강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직무교육인 기본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본연수는 ‘분석, 기획, 운영, 평가’의 4가지 직무내용과 ‘예술전문성, 관계&관리 역량, 교수역량’의 3가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상·하반기 방학기간에 이루어진다. 기본연수는 교육대상 및 현장의 분석과 ‘이해’를 위한 A코스(60시수), 교육경험이 일부 있는 강사의 ‘실행’ 강화를 위한 B코스(60시수), 현장교육 노하우가 쌓인 강사의 ‘기획’ 강화를 위한 C코스(20시수), 총 140시수를 2~3년 사이 이수하게 된다. 기본연수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에는 개설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2014년부터 기본연수를 대체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연수를 수료한 예술강사는 지속적인 교육역량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연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마이크로 티칭을 통한 교수 역량 강화, 분야별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학습, 실기교육지도법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 3) 강사-학교 배치

무용분야 예술강사 배치 학교는 2005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6년 초·중학교, 2008년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교과군내’ 수업(기본교과/선택교과)과 ‘교육과정교과군외’ 활동(창의적 체험활동/토요동아리)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가 지원교과로 추가되었다.

표 4. 예술강사 교급별 무용교육과정 지원 현황표

초등				중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돌봄 동아리	기본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기본 교과	선택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O	O	O	O	O	O	O	X	X	O	O

17개 시·도 교육청은 해당 연도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온라인 접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분야별 선발 규모와 학교의 수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발하고 지원시수(학교당 연 60~630시수 신청가능)를 최종 결정한다. 이 때 신청한 각 학교의 수업종류 선택에 따라 무용시간이 정해지고, 지원시수에 따라 무용교육이 이루어진다.

강사는 학교의 희망 여부 및 평가(선발)점수에 따라 배치가 진행되는데 한해 최소 120시수에서 최대 476시수까지 신청가능하며, 최대시수는 전년도 평가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강사 접수시 기재한 거주지 주소와 동일한 소재지 학교, 강사 선발시 기재한 교육과정과 교급에 해당하는 학교에 한해 배치 가능하며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는 초·중등 강사 모두 신청가능하다.

표 5. 예술강사 배치 단계

구분	단계	대상	최대시수	거주지	교육과정	교급
재배치	step1	기존강사 상위70% (하위30% 초과자)	300 (상위10% 이상:476)	적용	적용	적용
	step2	기존강사 상위70% (하위30% 초과자)				
	step3	기존강사 하위 30% 이하자	240 (하위10% 이하:180)			
	step4	신규강사	180			
	step5	기존·신규강사 전체				
오프라인 배치	오프라인	최소시수 미만 배치 강사	·	미적용	미적용	

#### 4) 무용 교육내용

예술강사는 배치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시수한도 내에서 학교와 의논하여 연간교육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한다. ‘기본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을 모두 숙지하고 교수하여야 하며, ‘선택교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내용을 교육한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고시된 제2011-361호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군은 움직임 표현과 리듬 표현, 5·6학년군은 민속표현과 주제표현의 단원으로 체육교과 안에 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학교는 1~3학년군 포괄하여 심미표현, 현대표현, 전통표현으로, 고등학교(10학년)는 창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무용교육학회, 2014:192-19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한국무용교육학회(초등-2004, 중학교-2005, 고등학교-2008)와 무용교재연구회(2011) 주도하에 예술강사들이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무용 교수-학습 과정안을 발행하였다. 한국무용교육학회(2008)에서는 무용교육내용을 무용놀이(초), 무용과 문화(중), 무용과 예술(고)로 체계화 시켰으며, 무용교재연구회(2011)에서는 놀이로서의 무용(초), 문화유산으로서의 무용(중), 예술로서의 무용(고)으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무용교육학회와 무용교재연구회가 각기 제시한 목표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초·중·고등학교 무용교육의 목표

교급	학제별 목표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용의 요소를 이해한다.</li> <li>·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신체로 표현할 수 있다.</li> <li>·표현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독창성을 기른다.</li> <li>·다양한 문화와 시대적 배경에서 무용을 이해한다.</li> <li>·문화유산으로서 무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li> <li>·타 교과의 소재나 내용을 무용에 적용할 수 있다.</li> <li>·생활로서의 무용을 이해한다.</li> </ul>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용의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한다.</li> <li>·무용즉흥과 창작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li> <li>·창작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구조를 이해한다.</li> <li>·무용을 문화유산으로 학습하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li> <li>·다양한 문화와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서 무용을 이해하고 실행한다.</li> <li>·무용학습을 통하여 예술 감상 능력을 기른다.</li> <li>·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문화인으로서의 태도를 갖는다.</li> </ul>

교급	학제별 목표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용의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li> <li>·다양한 장르의 무용 경험을 통해 무용의 예술적 특성을 이해한다.</li> <li>·안무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예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li> <li>·무용 감상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li> <li>·무용을 통하여 창의적 리더십을 기른다.</li> <li>·다원적 인지가 가능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게 한다.</li> </ul>

(김화숙 외, 2013:57-58)

표 7. 초·중·고등학교 무용교육의 목표

교급	학제별 목표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신체 언어를 체험하고 이해한다.</li> <li>·시각, 청각, 움직임 등의 통합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킨다.</li> <li>·움직임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인지력을 개발한다.</li> <li>·문화로서의 무용을 체험함으로써 무용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li> </ul>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으로서의 무용을 체험하고 이해한다.</li> <li>·무용의 기능 및 가치, 역사, 형식 등을 이해할 수 있다.</li> <li>·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움직임 표현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다.</li> </ul>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형식으로서의 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li> <li>·무용과 타예술의 통합작업을 통해 작품을 기획, 창작할 수 있다.</li> <li>·무용교육을 통해 자아를 개발하고 자기 치유적 기능을 실현한다.</li> <li>·무용을 통해 나와 가족, 사회와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li> </ul>

(무용교재연구회, 2011:9)

### 5) 강사 활동 평가

예술강사는 활동한 해 4월~11월 사이 교육활동을 평가받는다. 자신의 최다시수 출강 학교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평가방법은 담당교사 평가(30%), 학생만족도 조사(30%), 수업 계획 및 수업일지 평가(20%), 협조도 평가(20%)로 이루어져 있고, 도서벽지 출강여부와 교육활동경력에 따라 별도의 가점이 부여된다. 2012년도까지는 현장방문평가가 평가비율의 50%를 차지하였으나, 일회적인 현장 방문평가에 대한 점수 책정에 문제가 제기되어 2013년부터 현장방문점검이 평가 요소에서 제외되고 이를 대체한 수업계획 및 수업일지 평가가 신설되었다. 현재 평가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예술강사 평가 내용

평가 대상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자	적용 비율	내용
예술강사	교육 현장가	담당교사 평가	학교담당교사	30%	실제 수업에 참여한 협력수업교사 (1인)가 진행
		학생만족도 조사	학생 (수혜학생)	30%	담당교사가 조사 진행 후 결과 입력
	교육 운영 관리	수업계획 및 수업일지 평가	평가위원	20%	통합운영시스템 내 등록되어 있는 수업계획 및 수업일지 평가
		협조도 평가	지역운영기관	20%	공동지표 적용
	합계			100%	
	도서벽지 출강여부			강사별 교육활동 실적 분석 평가를 통해 가점부여	
	교육활동경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담당교사 평가는 협력수업교사가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적 기여도, 근태 관리, 학생과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등 5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학생만족도 조사는 예술강사의 수업이 4회 이상 진행된 학급 1개 반 학생들이 예술강사의 수업진행, 상호작용, 수업 재희망, 수업 만족도 등 4개의 지표, 중등학교는 수업준비까지 포함하여 5개의 지표에 따른 평가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계획 및 수업일지 평가는 통합운영시스템에 등록된 계획 및 일지를 평가위원 3인(교육전문가, 예술교육전문가, 교육청관계자)이 검토하여 진행하며, 협조도 평가는 전국 공통의 협조도 평가 지표 및 문항에 따라 지역운영기관이 평가한다. 평가 내용 중 담당교사 평가와 학생만족도 조사 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강사는 2인의 평가위원이 현장방문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서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강사는 재면접 및 모의수업평가를 진행한다.

#### 6) 강사 근로조건 및 처우

예술강사는 2010년부터 기존의 자유직업인 신분에서 10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조건이 변경되어, 전국16개의 광역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발 해당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무용교육 활동을 한다. 보수는 2005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시수 당 40,000원이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대상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도서벽지수당 10,000원이 추가 지급되고, 교통보조금은 접수 시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적으로 지급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된다. 기존의 예술 활동은 병행할 수 있고, 개인적인 사업의 경우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초·중등(중학교, 고등학교) 예술강사 10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이다.

표 9.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출강지역	교급	나이(세)	성별	기수	예술강사 활동기간	출강학교 누적수(개교)
A	서울	초등	45	여	3기	7년	11
B			33	여	8기	3년	4
C			35	여	4기	7년	10
D		중등	31	여	6기	5년	6
E			49	여	3기	8년	5
F	경기	초등	45	여	2기	9년	11
G			37	여	5기	6년	7
H			45	여	1기	10년	26
I		중등	49	여	2기	9년	9
J			39	여	2기	9년	12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교육환경에 대한 예술강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표 10>의 내용과 같은 문항을 연구자 본

인이 직접 질문지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10. 연구문제와 인터뷰 질문

연구문제	구분	인터뷰 질문
1.운영시스템	강사 접수 및 선발	·접수 과정에서 대한 의견이 있다면? ·선발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보완점은?
	강사-학교 배치 및 시수배정	·학교 배치시에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학교마다 적절한 시수배정과 학년, 내용의 연계적 무용수업이 이루어지는가?
	강사 평가	·수업일지, 담당교사, 학생만족도, 협조도로 구성된 평가 항목에 대한 강사님의 의견은? ·평가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근로조건 및 처우	·기간제 근로자, 의료보험무가입, 월60시수 이하의 수업 진행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은? ·시수당 4만원의 급여가 적당하다 보는가? ·예술강사를 전업으로 한다면 보완되어야 할 점은?
2.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기본연수 및 추가연수	·기본연수와 추가연수가 교육활동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나? ·기본연수와 추가연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요구하고 싶은 연수 내용이 있다면?
	교재	·기본연수와 함께 제공된 교재(무용 교수-학습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적인 수업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3.교육환경	교실 및 기자재	·수업을 진행한 학교 환경은 어떤 수준인가? ·기자재 확보와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교 교사의 인식 및 협업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의 관심과 인식은? ·수업 진행에 있어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학교무용교육에 임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경험, 의견, 감정, 지식 등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을 대면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와 선수면담을 통해 질문 문항을 시험하고, 누락/중복/불필요한 질문 등을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완성된 질문들로 본 면담을 진행하며 그 내용을 녹취, 기록하였다. 본 면담 후 빠뜨린 사항 또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e-mail, 전화 통화로 추수면담을 진행하였다. 전 인터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의 영역에 관련성, 타당성, 적합성에 따라 분류하고 반복되는 개념, 중심내용 등을 통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운영시스템

#### 1) 강사 접수 및 선발

접수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강사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기존강사들은 매해 활동을 지속하는데, 해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신청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재신청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강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강사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선발과정은 초창기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고, 2010년 6기 예술강사 선발부터 실기고사가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자질, 마인드’ 등을 심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과정으로서 심층 면접은 꼭 필요한 절차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실기고사는 예술강사로서 갖춰야할 여러 장르의 기본적인 동작의 이해와 시연 및 설명 가능성, 그리고 즉흥에 대한 적응력 등을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점차 의미가 변질되어 간다고 인식했다. 또한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에 의문이 드는 경우도 언급했다.

지원자들 중 서류전형의 세분화된 항목을 아는 강사들은 거의 없다. 교사자격증도 1기에는 100% 필수였으나 현재는 가산점으로 들어간다. 주변분들 중에 누가 보아도 정말 교육적 역량과 경력이 뛰어나고 경험도 오래된 분들이 떨어지고 7기부터는 대학을 갓 졸업한 지원자들이 많이 합격했는데, 이들이 과연 어디서 가산점이 더욱 주어졌을까 의문이다.(참여자 H)

실기평가에서 강사들의 교육적·예술적 능력이나 마인드가 평가기준이 아니고, 마치 무용단원을 뽑는 것처럼 실기복까지 맞춰 입고... 한때는 예술강사가 되기 위해 실기레슨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심사자들이 전공장르성도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실기심사는 왜곡이 있다. 무용을 예술에서 교육현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듯하다.(참여자 E)

경력이 오래되고 교육적 마인드가 갖춰진 교사와 실기를 잘하는 교사 중 어느 쪽이 교육능력이 우수할까? 교수 능력과 교육자 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참여자 J)



이렇듯 실기 역량을 어떻게 교육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심사자들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과 지원자들의 합격/불합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신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공개하여 투명한 선발 절차를 확보할 것을 보완점으로 제시했다.

## 2) 강사-학교 배치 및 시수배정

학교 배치 및 시수 배정은 전년도 활동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화 되어 배치 서열과 최대시수가 결정된다. 학교와 강사가 상호 재배치를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와 강사의 협력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나머지 배치step1~5는 레벨화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말한다.

모든 강사가 점수로 레벨화 되어 평가에 목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불편하다. 평가에 의한 시수배치는 형평성이 없다. 최대 476시수를 배정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상위10%로 두지 말고 보편화, 평준화 하여 시수한정을 높여주고 강사의 의지대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참여자 E)

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는 것이 매우 부담되고 연차가 오래된 강사에 대한 배려 정도가 너무 없어 불합리하다. 배치 신청 시에 1순위~3순위를 정해도 마지막 순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들 사이에 서로 합의하여 마지막 순간 학교를 빼 주고 선택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참여자 A)

서울지역에 비해 경기 지역의 경우 “많은 학교에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학교의 최대시수를 제한하여 강사들은 여러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한 학교에서 지속성, 연계성있는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해 배정되는 학교가 다르고 학교의 담당교사 역시 바뀌다보니 전 강사의 수업내용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학교수는 많으나 연계성 없이 떠돌이처럼 나가야 하고 학교입장에서도 지원을 하다가 마는 경우도 많다. 강사와 학교, 학생에게 모두 피해라고 생각한다. 연계적이지 않은 단발적인 수업은 강사입장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고, 학교 입장에서도 짧게 보는 강사에게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평가와 또다시 연계되니 문제이다.(참여자 A, I, G)

학교측에서도 무용수업의 연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매해 같은 학년을 배치해 모든 학생들이 꼭 한해씩 무용수업을 거치게 한다면, 전 강사들이 했던 수업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든가...(참여자 B)

### 3) 감사 평가

평가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지평가, 담당교사 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협조도 평가 모두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주관성 개입과 불공정의 이유로 폐기된 현장평가의 대안으로 2013년부터 일지 평가가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수업일지 양식은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수업과정에서 수업일지상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교육일시, 교사, 학년, 장소, 참여자 반응, 자체평가)은 평가 반영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고 명시되어 있지만 강사들은 이러한 기준 조차도 불확실하며, 실제 수업 상황과 일지 작성의 괴리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의문을 가졌다.

수업일지 평가는 일지를 수업 직후에 간단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진과 동영상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공지까지 뜨지만 매번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큰 용량의 일지들이 올라오고, 강사들 사이에 누가 더 일지를 잘 쓰나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간단, 명료하게 한 장 써놓은 일지보다 사진과 동영상 등 첨부해서 자세하고 보기 좋게 써놓은 일지에 사람 마음이 가게 되지 않을까? 심사위원들도 사람이니까... (참여자 B, F, G, H)

사람이 수업하지 일지가 수업하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번만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사람마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일지 잘 쓰고 교육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지는 못 쓰지만 현장형 강사가 있다.(참여자 I)

현장평가 때는 수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를 고민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면, 지금은 일지를 잘 쓰는 것에 집중되었다. 수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다.(참여자 B, G)

담당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의 경우 강사가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냐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수업을 참관하지도 않은 교사들이 강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수업 외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학생 평가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했다.

담당교사가 내 수업을 들어와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무용 수업이 배정된 경우는 괜찮으나 그 외의 담당교사는 수업 현장을 알지 못한다. 결국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참여자 A)

학생만족도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너무 복불복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움직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짙고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무용수업은 오히려 하기 싫어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향이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가 있을까?(참여자 E, J)

협조도 평가는 강사와 진흥원 또는 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공생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제시하는 제한된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하고, 불참 시에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어 다음해 선발에 영향을 받게 되니 자발적 참여보다는 강사를 연명하고 싶은 의지의 반영으로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역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협조도 평가의 불명확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는 모든 워크샵과 협조도 평가에 포함된다는 행사들은 모두 참석하였다. 하지만 협조도 점수가 황당하게 나와 진흥원에 문의했더니 그쪽에서도 모른다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참여자 I)

권역별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협조도 전수를 모두 만점 주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권역별 동일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참여자 J)

진술한 바를 종합해 보면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과 평가 결과가 강사의 교수활동 유지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강사들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했다.

일지를 자기성찰의 기회로 보면 좋은데 평가를 위한 과제로 보고 있으니...평가 방식을 계속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수업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반영하고 본인의 수업을 반성하는 의미의 일지를 쓰면 평가담당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배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교육 현장의 컨설팅 형식의 평가처럼 강사가 호소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참여자 E)

현 교육의 흐름과 연관된 무용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 좋은 수업과 관련없는 평가 기준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신규강사와 10년차 강사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강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참여자 E, J)

#### 4) 근로조건 및 처우

‘기간제 근로자’, ‘의료보험 무가입’, ‘월 60시수 이하 제한’, ‘시수당 4만원의 시급’ 등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해 대부분 개선되어야 함을 강하게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대로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매해 평가에 목숨이 달린 10개월짜리 단기 계약과 제한된 시수배정으로 예술강사라는 역할을 전업,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째 동결되어 있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승, 물가 상승, 주유비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4대 보험(건강 보험)이 안 되면 인간취급 안 해주는 사회에서 예술강사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다. 국민의 권리(세금)를 내고 있으나 우리는 수업 중에 사고가 나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의 싸워서 받는 식인데 차비정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며 다니자 한다.(참여자 H)

4만원이라는 시급이 10년 전에는 큰 것이었지만 지금은 대학의 강사료도 오르고, 문화센터도 시수당 4만원은 된다. 예산은 오르는데 강사료는 10년째 같다는게 말이 안 된다. 적어도 물가와 기름값 상승에 대한 반영의 여지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참여자 C, E)

일반적으로 최고 시수가 300인데 계산하면 한 달에 120만원 버는 것이다. 그것도 1, 2월은 실업자다. 이것으로 전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주수입이 있고 부수입이라면 모를까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들은 어렵다.(참여자 B, H)

이석중(2014)은 예술강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에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개선방안으로 ‘12개월 계약직, 4대 보험 적용, 실고용주의 계약주체화, 시급인상’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예술강사들의 인식과 일치하는 바이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예술강사를 전업 또는 평생직장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강사와 센터가 긍정적 비전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오래된 경력의 강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강사들의 미래에 대한 의지와 동기가 부여된다. 현재 1-10년차까지 같은 기준에서 평

가절하되는 것이 문제이다... 회사도 계약직 2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강사들도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참여자 I)

의료보험 무가입을 위한 시수제한은 어이없다. 강사료 인상도 좋지만 오를 수 없  
다면 후생복지(의료보험, 기본급 제도, 퇴직금제도) 등 변화 필요하다.(참여자 F)

## 2. 연수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 1) 기본연수 및 추가연수

3박4일의 일정 속에 이론, 실기, 토론, 네트워킹을 포함한 3년간의 기본연수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역량, 마인드 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대부분의 강  
사들은 기본연수가 교육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현장에 파견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고 인식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기본연수 과정에 실기가 제외되어 있고, 문화예술교  
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은 최소한의 의무교육만 이수하고 그 외의 실기연수는 선택  
과정으로 되어 있어 강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가연수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팁, 강사들이 함께  
네트워킹 하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사 스스로를 성찰하고 질 좋은 교육에 대해 고  
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일시에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냈다.

지금의 추가연수는 너무 상품적 내용들이 많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현장성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예술강사가 자기성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연수  
가 필요하다. 현 사회와 나, 예술이 만나는 인문학적 고민을 하는 연수가 절실하  
다.(참여자 E)

### 2) 교재

교육현장에서 주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무용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교재의 내용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애매하고, 변화된 교과과정과 연계되  
지 않아 현 교과서와 연계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재 자체는 훌륭하나 이  
것을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강사의 재량이 부족하고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재의 내용과 형식을 주로 따  
라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수업을 구상하되 교재의 내용을 참고할 것인지’하는 교

재 활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강사들은 교재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재와 나만의 창의적 수업계획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무용 교수-학습지도안 자체는 흠잡을 곳 없이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오히려 예술강사의 발전에는 독이 되어 연수에서 교육받은 것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연수에서 교육받은 것에서 벗어나면 평가에 반영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능률적인 수업 전개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참여자 H)

교재 자체는 최고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교과서와 연계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져 새 교재가 나올 것이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사의 재량이 중요하다 본다.(참여자 G)

교재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신규교과서와 연계된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현 교육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강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3. 교육환경

#### 1) 교실 및 기자재

무용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기실 또는 무용실을 제공하고,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오디오, 소모품, 교보재, 복사비, 그리고 강사의 대기실, 책상 등 교육활동의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예술강사를 지원받은 학교의 의무이다(문화관광부, 교육부, 2013).

지원학교 중 교장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경우 쾌적한 환경의 공간을 적극 제공하도록 배려하며,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무용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강당, 예절실, 특수활동실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교실에 비해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더욱 열악한 경우는 타 수업과 함께 한 공간에서 진행하거나, 체육단련실 등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거나, 식당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실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빔 등 기자재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무용알기 수업 또는 매체를 활용한 수업효과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자재의 경우 현재 초·중·특수학교에는 탈출 한삼 25세트와 스피커 1대, 고등학교에

는 부채 25세트와 스피커 1대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한삼과 부채 25세트로는 한 학급의 인원이 사용하기에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스피커는 제공되어도 오디오에 맞지 않아 사용 불가능하거나, 담당교사가 제공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학교도 있었다.

예절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장소인데 여기에는 다도를 위한 찻잔과 도자기들이 들어있는 찬장이 있고, 어떤 곳은 보료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실제로 남학생이 열심히 움직임에 집중하다가 찬장유리를 깨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참여자 G)

각 교실은 청소를 하지만 그 외의 특별활동실은 먼지가 덩어리로 굴러다닐 정도로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바닥을 이용하는 움직임은 제시하기 꺼려진다. 강사가 수업 전에 매번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참여자 B)

한삼은 질이 너무 나빠 한번 휘두르면 고무줄이 터지는 경우가 다분하고, 스피커는 기존의 오디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필요없는 기자재에 예산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실제 수업에 필요한 무선마이크를 제공하면 어떨까?(참여자 J)

이처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용수업을 진행하려면 무용실까지는 어렵더라도 단독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술강사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진흥원 측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학교 선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재 지원 내용과 방법도 실질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업자료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2) 학교 교사의 인식 및 협력

무용수업에 대한 학교교사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주지교과에 비하면 여전히 중요성 인식이 낮고, ‘체육수업의 일부를 떼어서 담임교사가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을 무용강사가 대신 교육하는 시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 교사는 교육계획 수립단계부터 수업 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하여 예술강사와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술강사 단독수업은 불가하다(문화관광부, 교육부, 2013)’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담임교사와 무용교사의 협력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비현실적인 실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직 학교 시스템에 익숙치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므로 수업시 안전사고의 염두 하에 담임

교사가 가끔 참여하기는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거나 장난을 치는 것을 제지해주는 정도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무용수업은 온전히 무용교사의 단독수업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도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배제되어 있었다.

예술강사 파견 무용 수업에 대해 인식과 관심없는 교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기한 부분도 있죠. 협업 요구하면 들어와서 줄고 계실 때도 많고, 본인 업무 가지고 오셔서 본인 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학생에 대해 서로 의논하거나 수업에 대해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교사도 간혹 있습니다.(참여자 C)

교사와 강사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수가 필요함을 언급했고, 더불어 예술강사 스스로 무용교육에 대한 열의와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것을 언급했다.

예술강사들이 조금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요구할 것은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학교에 계신 교사들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할 필요도 있다. 대접 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게 맞다.(참여자 H)

사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있을 곳이 없어 복도에서 서성이거나, 물 마실 곳도 적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외부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처럼 누군가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건 옳지 않다고 봐요.(참여자 C)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시스템,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 보완과 개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강사들의 직무만족이나 불만족, 이직의사의 경우 업무환경을 비롯한 직무요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이경희,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한 '2007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 특히 무용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램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다(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2008:63). 이러한 사실은 예술강사 활동을 단기간의 임시직으로 여기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무용교육의 유의한 가치를 실현시켜 주고픈 진정한 교육 활동으로서의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예술강사들이 지원사업 제반 사항에서 인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무용교사로서 취해야 할 직업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진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류태호(2000)는 직업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로 교육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손에 달려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상황에 따라 적당히 생활에 적응할 때 진정한 교육은 실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무용교육자가 양적으로 팽창되는 시점에서 예술강사 활동이 안정된 생활과 직업정체성 확립, 더 나아가 사명감을 갖는 무용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와 무용계가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로 협업해야 할 것이다.

UNESCO의 석좌교수인 Ernst Wagner는 2014년 2월 암스테르담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Quality Now'의 내용 중에서 예술교육의 '질(quality)'을 세 가지 측면 - Input Quality(aims & resources), Process Quality(teaching & learning), Output Quality(results & feedback)-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마그너가 언급한 세 가지 영역의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http://www.arte365.kr/?p=30626>). CCE는 예술교육의 방법에 따라 성과가 높아지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훌륭한 커리큘럼만큼이나 결과를 이끄는 교수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가 교사나 예술가들의 전문적 자질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좁은 개념의 '질'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예술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교육관련 정책 수립 시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예술강사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 반영할 것을 기대해 본다.

## V. 결론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 분석의 필요성을 가지고 서울·경기 지역 무용 분야 학교예술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시스템 중 강사 접수 및 선발에 있어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선발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강사-학교 배치 과정에서는 레벨에 의한 배치 시수 한정을 평준화하고, 학교와 강사가 학년·교육내용 등 수업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며 정책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는 강사를 탈락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강사 개인의 성찰과 발전을 위한 효율적, 발전적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하며, 전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기간 장기화, 급여인상, 강사경력 인정 비율 확대 등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본연수는 교육이론, 방법론, 실기, 네트워킹 등이 포함된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추가연수는 강사 개인의 성찰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교재는 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내용 및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교사의 창의적 역량 강화위한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용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장소 확보 후 학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자재는 실질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사와의 협업은 무용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과 예술강사와의 협업 연수 프로그램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예술강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학교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지은(2009),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변화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경(2010), “초등무용교육의 교과 내용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연정(2011),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참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자영(2010), “초등학교 창작무용수업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1)**, 65-82.
- \_\_\_\_\_ (2011), “무용극흥을 통한 초등학생의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 변화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2)**, 189-215.
- 김재은(2014), **아이들에게 예술을**, 파주:교육과학사.
- 김현주(2014), “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진(2013), “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김화숙, 류분순, 신은경, 신정희, 오레지나, 임혜자, 한혜리(2013), **무용교육론**, 한학문화.
- 류태호(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3)**, 725-739.
-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2008),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활동보고 2002-2008, 무용교사자격증, 왜 필요한가?**, 한학문화.
- 무용교재 연구회(2011),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2013),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대상학교선정 및 지원계획”.

- 박은희(2008),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주화(2011),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무용분야에 관한 만족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반민주(2010),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저학년 초등학생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혜숙, 조진영(2014), “무용 예술강사의 교수효능감과 직업정체성과의 관계”, 2014. 5. 10 한성대학교 미래관, **제29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용과학회.
- 이경희(2013), “예술강사의 업무환경과 직무요인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석종(2014), “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3. 8. 동국대학교 문화관, **2014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 이선지(2010), “예술무용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점 모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정민(2014) “무용교사자격증 제도 마련, 무용교육에 헌신한 김화숙 원광대학교 교수”, **몸 2014년 6월호(통권235)**, 18-21.
- 진중권(2005),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서울:휴머니스트.
- 최윤진(2007), “무용전문강사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무용교육 실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하영, 이강순(2012), “창작무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감성지수 변화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105-119.
- 한국무용교육학회(2014), “무용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2)**, 192-19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7-2013), **연차보고서**.
- \_\_\_\_\_ (2014), “2014 예술강사 교육활동 및 운영학교 협조도 평가 안내(예술강사용)”
- 한혜리(2014), “예술 통합의 구조와 체험으로서의 무용교육”, 2014. 6. 28 경성대학교 프레지던트홀, **제21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무용교육학회.
- 홍세라(2011), “한국 문화예술교육과 연극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5**, 125-139.
- 황혜원(2008),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무용강사 인식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Davis, J. H.(2012), 백경미(역,2013),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서울:열린책들.
- <http://intro.arte.or.kr/business/>,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사업안내.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402&artid=2014052620434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402&artid=201405262043405), 김봉년(2014) “문화예술교육, 뇌과학 활용한 연구 필요”.
- <http://www.arte365.kr/?p=1339>,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팀(2012).
- <http://www.arte365.kr/?p=30626>, 파울콜라드(2014)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완성하는 조건” [www.oecd.org/edu/ceeri/arts.htm](http://www.oecd.org/edu/ceeri/arts.htm)